

Hyundae Bulkyo 8th

창간 8주년 특별기획 IV

# 사찰이 달라지고 있다

## 전통·지역 특성에 맞춰 수행 복지 교육 문화 사찰로

**수행** 최근 3~4년간 불자들의 수행 열풍이 이어지면서 참선, 염불, 독경 등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전문 수행도량이 늘고 있다. 기존 사찰들도 수행원과 선방 등을 잇달아 개원, 불자들의 수행패턴이 기도위주에서 참선 등 수행위주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자상한 지도하에 참선수행을 할 수 있으며, 전문수련원을 찾아, 근기에 따라 여래선 화두선 등 다양한 수행법을 배워 수행에 몰두할 수 있다.

수행전문사찰로 개원한 서울 금강선원, 강원도 홍천 '선문장'과 경기 광주 유마정사, 남양주 봉인사 전문수련원은 수행명의 불자들이 자유롭게 수행과 경전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곳이다. 전문수련원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수행을 배우고 몰두하고자 하는 재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자들의 수행방법의 변화는 도심 사찰인 조계사 봉은사 길상사 등 기존사찰의 변화도 가져오고 있다. 사찰에서는 신도들의 욕구가 전문 수행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열린 시민선방'을 운영, 불자들의 수행의지를 북돋고 있다. 특히 조계사는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시민선방 간경원 염불원 등 총합성격의 3원 체제를 갖춘 전문수련원을 개원,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촌 보림사, 광주 광복사 등은 직장인들이 아침과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이용, 생활속에서 틈틈이 정진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있다.

**교육** 사찰들이 포교활동뿐 아니라 교육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사찰문화와 포교, 지역주민과의 유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쓰레기 제로 운동, 북한동포 돕기 운동 등으로 유명한 정토회(대표 유수)는 '정토행자'들에 대한 환경교육, 통일교육으로 생활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교육은 산하 단체인 한국불교환경교육원과 연계해 '환경공정화' 등을 열어 이뤄지고, 통일교육은 국내외의 통일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초청, 강의를 듣고 이어

사찰이 가까워졌다. 이제 춤과 음악 등 웬만한 볼거리는 굳이 다른 곳을 찾지 않아도 된다. 원하면 산사 풍경을 벗 삼아 주말을 마음 편히 쉬 수도 있다. 자연을 배우고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며 텃밭을 일굴 수도 있다. 사찰은 이제 공연장이다. 휴식처, 주말농장이다.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달라진 것은 이뿐만 아니다. 상당수의 사찰들이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각자의 개성에 한껏 색칠을 하고 있다. 어떤 사찰은 한 달 내내 수행에 몰두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한문 학당이 되는 가 하면 영어를 가르치는 곳도 있다. 또 지역문화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지역민의 복지에 발 벗고 나서는 곳도 적지 않다.

사찰들이 이렇게 전통과 지역의 특색에 맞춰 특성화되고 일반에 친숙해지면서 얻어지는 효과는 상당하다. 올바른 여가문화 선도는 물론 국민 정서 함양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불교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넓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사찰에 가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고, 바로 거기에서 '삶의 의미'와 '여유'를 찾는다. 절이라는 생각조차 없이 외서는 다양한 여가와 보람을 얻을 수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절'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사찰은 이제 범죄를 보고 기도를 하는 고전적인 개념의 '절'이 아니라 생활의 친숙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그 변화의 현장을 찾아가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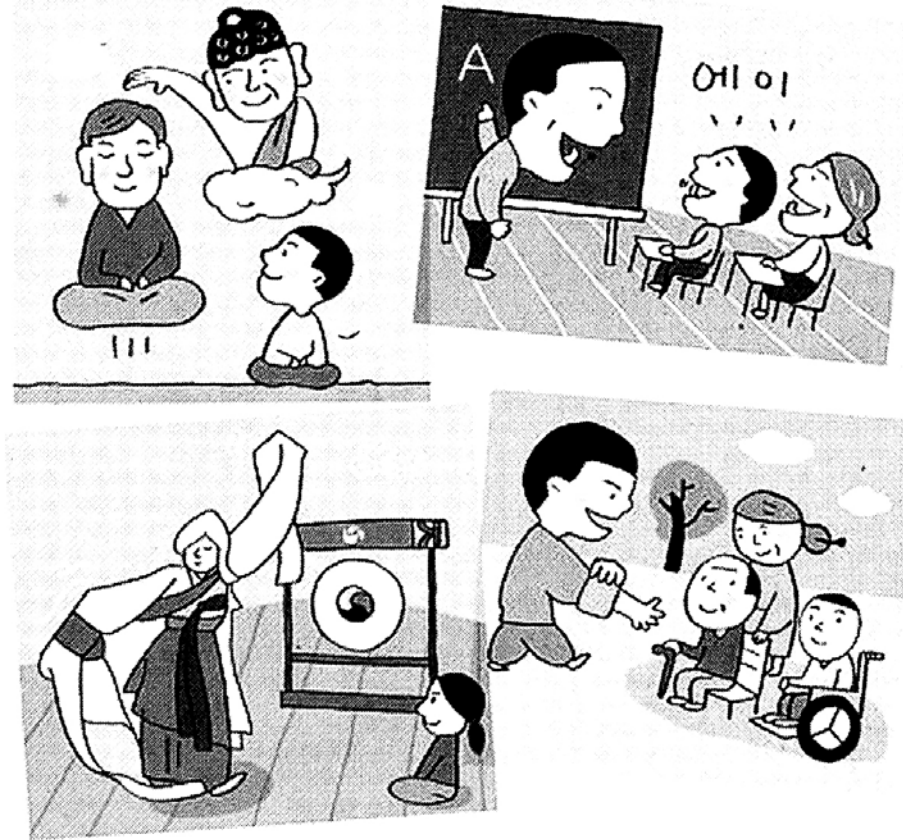
'통일대화마당'에서는 참가자 토론이 진행된다.

국제화 시대에 필수로 요구되는 영어는 포교활동의 좋은 도구다. 이 점에 착안, 서울 화계사(주지 성광)는 신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영어강좌를 열고 있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에 열리는 강좌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국제선원에 있는 스님들이 직접 강의해 부모님들에게 호

들도 참석해 종교간 이해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이 외에도 서울 백련사와 해남 미황사들이 실시하는 한문학교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한문교육은 물론 예절교육까지 함께 배우는 공간으로,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은 재나 기도 중심의 소극적 포교에서 교육을 개개체로 한 서비스



그림·김영민

체형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실시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

양산 통도사는 성보박물관 문화센터를 개설하고 직접적인 문화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부산 포교원에 문화관을 설립하고 어머니합창단, 국악단, 사물놀이반, 우바이 무용단 운

이 단체는 11년 전부터 천안 불광사가 운영 중인 사물놀이패이다.

대전 현불사 우리문화예술원도 중요무형문화재 승무와 살풀이 이수자인 법우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전통무용 강좌로, 문화기반이 미약한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회 복지도량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다.

천태종과 교양시 불교사원연합회는 올 4월 호스피스 자원봉사단을 창립했고, 부산 범어사와 울산 정토사, 충북 청원 정토마을 등은 이미 호스피스 간병활동으로 임종환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매만져 준다.

또 서울 삼천사는 노인, 서울 광림사는 장애인, 부산 내원정사는 아동·청소년, 부천 석왕사는 사회복지 등 복지활동이 영역별로 세분화되며 전문복지 영역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노인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서울 삼천사는 99년 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 3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노인복지관으로 선정되고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치매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전문도량인 서울 광림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운전자 교육을 국내 처음으로 민간에서 실시했으며, 올 해 9월 자원봉사를 위한 휴대용 수화집 '수화사랑 친구사랑'을 발간, 장애인 복지의 모범으로 인정받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 체계적 수행위한 수련원 속속 개설 문화체험 인기...전통 체화하는 곳

음이 높다.

뭇배우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열리는 한글학교와 영어 및 수학 교육도 고통받는 중생구제라는 측면에서 포교의 한 모델이다.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의 경우 종교와 관계없이 한글학교와 영어 및 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0~80대 사이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들은 개인교나 전주교 신자

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문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다. 그런 만큼 문화포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일반인과 불자들에게 불교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시켜,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서각 공예반, 불화 그리기반, 사진반, 다도반, 꽃꽂이반, 연구답사반 등 문화

### 자원봉사단 증가 '찾아가 나누는 사찰' 호스피스·치매요양원 등 복지 전문화

영, '주제가 있는 전통문화 체험' 등 외국인 과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현재 회원 1천2백여명인 사물놀이패. 이 사물놀이패는 천안지역 명물입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전통문화를 견인하는 단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회원중 종교비중은 불교 70% 일반인과 타종교인이 30%이다.

**복지**

사찰이 지역 특색과 사찰의 전통에 맞춘 불교복지사업을 활발히 펼치면서 '찾아가 나누는 사찰로' 탈바꿈 하고 있다. 사찰들의 자원봉사단 창립이 늘면서 일반적인 자원봉사의 영역을 넘어 호스피스, 수지침, 발반사요법, 독거노인 돌보기 등 전문영역까지 관심을 돌리는 등 사찰이 명실

## 태극전사들이 먹는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제매자 (주)수신토 대표 / 성 광 수씨

###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월드컵대표선수단에 이어 국가대표 전종목선수들이 '수신토종오가피'를 먹고 있습니다. (주)수신토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한국선수단의 체력증진을 위해 토종오가피 2000상자를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토종오가피는 6월 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도 태극전사들이 복용했다. - 동아일보 9월 25일자 보도 -

### 오가피를 심으시려면 서두르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제매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 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수십년 수확이 가능한 토종오가피!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서두르십시오.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과 이번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꼭 국내최대오가피제매자 성광수씨의 사진을 확인하십시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인쇄되어 있는 이 사진이 없다면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자료무료신청 (02)446-4422

## 승복 법복 안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 |                   |   |
|-------------------|---|
| 1. 모직혼방 물세탁 가능    | 적삼, 바지 : ₩140,000 동방, 바지 : ₩160,000<br>두루막 : ₩140,000 |
|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 적삼, 바지 : ₩130,000 동방, 바지 : ₩150,000<br>두루막 : ₩130,000 |
| 3. 누비 (면솜 100%)   | 적삼, 바지 : ₩220,000 동방, 바지 : ₩240,000<br>두루막 : ₩200,000 |
| 4. 누비 (혼방)        | 적삼, 바지 : ₩170,000 동방, 바지 : ₩190,000<br>두루막 : ₩170,000 |
| 5. 법복 (회색, 밤색)    | 조끼, 바지 : ₩60,000 ~ ₩65,000                            |
| 6. 장삼 (모직)        | ₩200,000 ~ ₩250,000                                   |

※ 기사 주문받습니다 ※

● 찾아오시는길 : 대구 지아절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 아름섬유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모집)